



5.31 거리에서 뜨겁게 만납니다

"장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3지대장이 정권의 건설노조 기획탄압에 맞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

그는 지역 건설사들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압수수색 15차례, 16명 구속, 1000여 명이 넘는 소환조사,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1억 3000여만 원 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 등 건설노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진행 중이다.

상시적 해고, 임금 체불, 생명이 위태로운 건설현장에서 인생을 밝힐 유일한 빛이었던 노동조합을 부정당한 그의 울분이 가슴을 찌른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후 지지율이 부진할 때마다 노조 때리기로 재미를 봤지만, 이토록 가혹한 기획탄압은 정권의 노조 때리기가 지지율 반등 노력 정도의 행보가 아니라는 데에서 긴장을 더한다.

다음 시대 패권 다툼

전략자산. '고성능 무기체계'를 뜻하던 이 단어는 이제 반도체를 말한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격렬한 대립은 다음 시대의 세계 패권전쟁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세계는, 미국 패권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 위기 속에서 다음 시대의 패권을 향한 세계 각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어느 일방에 올인하는 정책은 피하면서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는다.

그러나 윤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기존 세계질서에 충성하는 외교와 경제 정책으로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중이 적극 경제협력을 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 경제에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에 미국의 장기 말을 자처하는 윤정권은 기업집단의 불안과 위험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노동조합 때려잡기, 노동권 후퇴와 축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노동에 드리우는 국가폭력의 그림자

건설노조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탄압, 노동조합에 대한 패륜적 낙인과 분열조장, 각종 법-제도적 후퇴 노력에 더불어 국가폭력의 수위가 높아진다.

3월 15일 한국와이퍼에 근거 없이 공권력이 들어왔고, 대구지부 조양한울,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에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전북에서 경찰은 광수대 투입 등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무리한 그림을 연출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일상적 선전전에 경찰을 투입해 조합원을 체포했고, 울산의 서진산업사내하청 공장의 일방폐업은 완성사의 기획-비호 의혹까지 제기됐다.

노조 적대적 사회 분위기-이를 지원하는 국가폭력의 힘이 기업에게 노조공격비용의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두들길 기회를 열어준다.

5.31 거리에서

금속노조는 오는 5월 3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서울 도심에서 윤정권 퇴진을 외치는 투쟁을 준비한다. 각 사업장은 이에 마음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준비 중이다.

올해 중앙·집단교섭은 정부의 임금-노동시간-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을 후퇴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예비하는 요구안을 걸고 진행 중이다.

중앙교섭 6차, 사측은 '시간-임금-임금체계 관련 사항을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는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강행규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를 우려하여 유보적 안을 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부 집단교섭 또한 5.18(목) 5차에 이르렀고, 지난 주(5.11) 사측 교섭위원들이 워크숍을 진행했기에 제시안을 기대했으나 기존 사업장과 최근 결합 사업장의 격차를 이유로 어떤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중앙교섭, 집단교섭 모두 사측이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며 저울질하는 양상이다.

노동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며 현장을 지키고 사회를 바꿔가야 할 어려움이 2023년 임단협에 무겁게 지워져 있다.

다음 시대를 향한 지배세력의 패권경쟁 속에 이어질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만들고 대안을 이야기할 노동조합의 태세를 보여주는 투쟁을 하나하나 정성껏 펼쳐나가자.



크린팩토메이션 첫 단체협약 체결

2022년 9월 24일 설립한 크린팩토메이션지회가 해를 넘겨 23년 4월 27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크린팩토메이션 조합원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자동화 설비와 공장장비를 만들고 보수하는 일을 한다. 회사의 횡포와 고용불안에 일터를 떠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530여 조합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일을 하고 있기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반년에 이르는 노력 끝에 무사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간부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3차례나 현장에 게시한 일을 들었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지회는 바로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조합원과 공유하며 대응했고, 오히려 흩어져 있는 조합원의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단체협약에서 가장 좋은 점은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 힘들 정도지만, 무엇보다 회사와의 소통창구가 생긴 점, 내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들어주는 노동조합이 생긴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했다.



한국와이퍼

3.15 경찰침탈 이후 이를 규탄하는 투쟁과 함께 댄스 등과 교섭을 이어가는 중인 한국와이퍼분회. 현장 지키고, 농성도 이어가며 연대의 폭을 넓히고 기여한다.

일진하이슬루스 등 국가폭력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며 연대투쟁과 매일 선전전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우화인켐지회 설립

지난 4월 25일 동우화인켐지회가 설립, 지부 새식구가 또 늘었다. 동우화인켐은 평택 포승공단에서 반도체 관련 종합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하는 2천여 명 규모의 기업으로, 현재 740여 명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고, 권리를 지키고 키울 더 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출근선전전에는 평택포승권 사업장들이 대거 힘을 보탰다.(아래 사진)



유베이스수원

업무 조합원은 교섭, 해고 조합원은 소송. 투 트랙을 달리며 서로 의지하고 지켜가는 유베이스수원지회, 5월부터 을지로, 부천 등 유베이스 메가센터 선전전을 재개했다. 희망철도 마음잇는기차여행, 경기도콜센터 집단치유프로그램,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공동대응팀의 콜센터 노동자 노동건강 실태조사 등 지회를 지켜보고 연대하는 이들도 확장 중.

한국에플 새시작 알린 현판식

평택 추팔공단에서 산업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평택지회가 4.10(월) 현판을 달았다. 21.10.28 노조를 설립하고 복잡한 창구단일화와 첫 교섭과 파업을 거쳐 22.9.26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니 두툼은 현판식이다. 코로나로 모임 수가 없어 미뤄졌던 현판식을 2023년 교섭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며 새로운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익명의 회사정보 공유앱 블라인드에서 저임금, 일방적 노무관리, 소통 부재 등 문제와 개선사항을 토로하던 것이 노조가 필요하단 이야기로, 그리고 진짜 노동조합으로 이어졌다. 익산공장에 기업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에 다수노조임이 확인되었지만 익산에 있는 기업노조의 이익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중이다. 지회는 조직을 키우고 안정화하며 교섭에 제대로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기억하는 청년의 목소리

39차지부 정기대대에서 설치한 **청년위원회**가 첫 삽을 떴다.

5월 12일 지부 청년조합원 27명이 **518 광주민중항쟁 청년기행단**을 꾸렸다. 이들은 518 사적지인 옛전남도청, 전일빌딩,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돌아보며 노동조합활동의 가장 기본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원과 역사를 배웠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재는 과거 선배들의 투쟁의 성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뜻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청년위원회는 '모든 세대를 노조 활동의 주체로' 만들어 노조 내 세대조화를 이룬다는 포부 아래 청년조합원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기행단에 참가한 **소감**을 신는다.

8월의 암울했던 시기와 민주화의 간절했던 열망을 오늘 몸소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중략) 내가 만약 저 시기에, 저 환경에, 저 나이에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종주 화성지회 신한발보분회 대의원**

많이 유익한 역사기행이었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강진호 모비스전자 문체부장

(중략) 반성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느끼고 되새겨 본다.

홍문기 삼성전자서비스강지회 사무장

518에 대해 심도있게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배 열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 크린팩토메이션지회 사무장

너무나 뜻깊은 자리였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진 보그워퍼지회 대의원

(중략)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유지되는 한 결코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의 햇빛을 밝히는 하루였습니다.

이범주 한국화양전자지회 교섭부장

518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니 금속노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강규현 현대캐피탈지회 대의원

아직까지도 이름없는 무덤이 있다는 것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겠습니다.

강영훈 현대캐피탈지회 사무장

이미 알고있는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역시 달랐습니다. 또한 518 역사와 노동운동의 역사가 함께 이어져 왔다는 새로운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뜻깊었고 감사합니다~ 청년위 파이팅!
모수환 대원평화지회 조직2부장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 언니, 친구, 선배, 이웃 그리고 나.

이것이 '빨갱이'의 실체이다.

촛불혁명, 6월항쟁, 518민중항쟁, 419혁명, 31운동 그리고 수많은 외세침략으로부터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은 투쟁으로 삶을 지켜내고 있다. (중략) 앞으로의 투쟁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겠다.

이원식 에스제지회 대의원

이번 5.18기행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중략) 독재정권은 언제나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끼며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운서 계양지회 청년부장

